

K-배터리 3社, 'LFP' 개발 속도... 중저가 전기차 시장 공략

(리튬인산철)

LG엔솔 “양산 계획 앞당길 것”
삼성SDI 소재 등 생산라인 확대
SK온 LFP배터리 시제품 선배

전기차 시장 성장률이 꺾인 가운데 국내 배터리 기업들이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개발에 속도를 올릴 전망이다.

5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리튬이온 배터리의 무역적자가 9개월 동안 이어지고 있다. 배터리는 국내 배터리 업계 발전과 함께 수출액도 2012년 조사 이후 증가 추세였으나 올해 적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게 된 것이다. 업계에서는 글로벌 경기 침체와 이에 따른 전기차 구매력이 쪼여서 생긴 현상으로 보고 있다.

그럼에도 업계에서는 전기차 판매량은 줄어든다고 장기간적으로 전기차 수요가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성장세는 확실히 둔화한 모습이다. 배터리 시장조사 업체 SNE리서치에 따르면 최대 시장인 중국의 전기차 인도량도 지난해 상반기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는 42.7% 증가에 그쳤다. 앞선 2021년 상



삼성SDI P6 각형 배터리 이미지.



/삼성SDI

SK온 LFP 배터리 시제품

/SK온

반기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123.6% 증가했기에 폭발적인 이전 성장세와는 비교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북미 시장의 전기차 인도량 증가율이 54.7%에서 53.2% 줄어들어 중국 시장보다는 둔화 속도가 느리지만 주춤한 것은 사실이다.

이에 배터리 업계에서는 LFP 배터리 개발을 하나의 돌파구로 삼고 있다. 완성차들이 LFP 배터리에 '니즈' 가지고 있으며 LFP 배터리의 성능이 점차 향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NCM 계열 배터리 개발을 축소하거나 접겠다는 취지에서

나온 말이 아니다”라며 “테슬라를 비롯해 현대자동차, 스텔란티스, 제너럴모터스(GM) 등 전기차를 만드는 완성차 업체들이 향후 출시 모델에 LFP를 사용하겠다는 발표를 이어가고 있기에 고객의 니즈에 대응하는 차원에서라도 LFP 배터리 개발에 나설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배터리 기업들도 LFP 배터리 양산에 속도를 높이는 모습이다. 국내 배터리 기업들은 중국 배터리 기업에 비해 LFP 배터리 개발이 늦어졌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앞선 경쟁업체들을 따라잡을 수 있

다는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최근 3분기 실적 발표회를 통해 전기차용 LFP 배터리를 2026년부터 양산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창실 LG에너지솔루션 부사장은 “기존 파우치형 배터리 셀의 장점을 접목한 전기차용 LFP·LMFP 배터리를 개발해 저가 전기차 시장에 대응할 계획”이라고 공식화했다.

권영수 LG에너지솔루션 부회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과거에 LFP 배터리를 해본 경험이 있기에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며 “기술적인 어려움은 없다”고 답했다. 오히려 전기차용 LFP를

가능한 한 빨리 양산하도록 노력해 LG 에너지솔루션이 세운 기존 목표인 ‘2026년 상용화’보다 판매 시점을 앞당기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삼성SDI도 2026년 양산을 목표로 LFP 배터리 소재 생산과 라인 구축을 검토하고 있다. 손미카엘 삼성SDI 중대형 전략마케팅실장(부사장)은 3분기 컨퍼런스콜을 통해 “LFP 소재 관련 동종업체 대비 시작은 늦었지만 당사만의 제품 설계 최적화, 공정 및 설비 혁신 등을 통한 원가 경쟁력 확보와 최고의 품질을 바탕으로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SK온은 지난 3월 ‘인터배터리 2023’에서 전기차용 LFP 배터리 시제품을 공개한 바 있다.

또 다른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중저가용 배터리 시장이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전기차 판매 추이를 보면 고급차량이나 픽업트럭 같은 대형차량의 매출이 높을 수는 있어도 배터리 보급률 자체는 중저가배터리가 많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SK이노 ‘글로벌 피어 그룹과의 비교분석 케이스스터디’ 발표회

“그린 트랜스포메이션, 에너지 업계 선도 역할”

美 애리조나대 라마스와미 교수 분석
“기술 확정성·경제성 동시 달성 기업”

SK이노베이션의 ‘그린 트랜스포메이션(친환경 전환) 전략이 에너지 업계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석학의 평가가 나왔다.

SK이노베이션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은 美 애리조나 주립대학교 쉐던버드 경영대학원의 카난 라마스와미 교수가 지난 3일 SK서린빌딩에서 ‘글로벌 피어(Peer) 그룹과의 비교분석 케이스스터디’ 발표회를 화상으로 열고 연구 결과를 공유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라마스와미 교수는 SK이노베이션이 추진하는 그린 트랜스포메이션 전략을 분석하고 동종기업 간 비교를 통해 차별적 이점을 도출했다. SK이노베이션이 추진하는 전략이 ▲명확한 사업전략 ▲우수한 기업문화 ▲투-트랙 혁신전략 세 가지를 지녀, 이를 실행하고자 하는 SK 경영진의 기업가 정신과 만나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날 발표회에서 라마스와미 교수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열린 ‘글로벌 피어(Peer) 그룹과의 비교분석 케이스스터디’ 발표회에서 화상으로 참여한 카난 라마스와미 교수가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

는 “SK이노베이션은 친환경 에너지 미래를 향해 대규모 변화를 굳건히 추진하는 기업 중 하나”라며 “이를 위한 실천의지가 전사적인 비전, 사업 전략 등 회사 전반에 녹아들어있다”고 분석했다.

비교대상 기업으로는 SK이노베이션과 유사한 사업구조, 연혁, 사업 목표 등을 가진 글로벌 석유화학 기업들을 선정했으며, 친환경 전략 집중도와 포트폴리오 다양성을 두 축으로 이행 수

준을 살폈다.

라마스와미 교수는 SK이노베이션만이 지닌 차별점으로 유공시절부터 이어 온 명확한 미래지향적 사업전략과 이를 실행하는 경영진의 일관된 리더십을 꼽았다. 빠르게 변화하는 기업환경에서 SK이노베이션 성과창출에 기여한 주요 요인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또한 사업 전략을 이행하는 리더십의 근원으로 ‘SKMS 기반 경영’, ‘SUPEX 추구’ 기업 문화를 꼽았다.

이 밖에도 라마스와미 교수는 SK이노베이션이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기술 확정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달성하는 기업이라고 진단했다.

SK이노베이션은 이날 발표에 대해 “탄소에서 그린으로의 사업 전환 비전인 파이낸셜스토리와 그린 트랜스포메이션 전략 우수성을 글로벌 석학으로부터 인정받아 기쁘다”며 “SK이노베이션 전 구성원에게 이번 분석 결과와 의미를 공유한 만큼, 이를 토대로 전략 실행을 더욱 가속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스타벅스서 휴양지 기분 만끽

LGD, ‘투명 OLED’ 공간 혁신

더여수 돌산DT점에 투명 OLED 적용

LG디스플레이 투명 OLED 디스플레이가 스타벅스 매장에 도입된다.

LG디스플레이는 스타벅스 더여수 돌산DT점에 투명 OLED 테이블을 적용했다고 5일 밝혔다.

매장에 설치된 투명 OLED는 55인치 투명 OLED 12대를 이어붙인 8m 길이의 초대형 제품이다. 매장 자체를 명소화하는 목적으로 만든 스타벅스 ‘더매장’에서 혁신 공간을 구현하고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투명 OLED 테이블은 매장 1층 중앙에 배치됐다. 파도가 출렁이는 영상을 구현해 매장에서도 바닷가를 연상케 한다. 음료를 올려놓으면 잔 주변으로 물결이 일렁이는 효과도 연출한다.

앞서 LG디스플레이는 지난 6월 스타벅스와 투명 OLED를 적용한 미래형 매장 콘셉트를 선보인 바 있다. 발열이 적고 안전하며 다양하게 설치 가능해



스타벅스 더여수돌산DT점에 설치된 투명 OLED 테이블. /LG디스플레이

확장도 용이하다.

LG디스플레이는 기존 55인치 투명 OLED에 이어 향후 77인치, 30인치 등 라인업 확대를 통해 고객 선택의 폭을 넓혀나갈 계획이다.

LG디스플레이 여준호 솔루션 CX 그룹장(상무)은 “투명 OLED만의 무한한 확장성을 기반으로 다양한 이종 산업과의 협업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지속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용 기자 juk@

제주항공, 항공산업발전 대상 수상

제주항공이 한국항공경영학회에서 수여하는 항공산업발전 대상 수상했다.

제주항공은 한국항공경영학회 창립 20주년을 맞아 진행된 ‘2023 추계학술대회’에서 지속적인 체계 개선을 통해 기업문화 혁신을 도모하고 환경경영 고도화와 지속 가능한 전략을 수립하는 등 국내 항공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

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항공산업발전 대상 수상했다고 5일 밝혔다.

제주항공은 ▲수평적 조직문화 확산 ▲객실 승무원 안경 착용, 네일케어 허용 등 제한 규정 변경 ▲사내 의사소통 및 복리후생 강화 등 조직풍토 개선 활동을 통한 기업문화 혁신을 도모하고 있다. 또 ▲녹색구매 경영 강화 및 온실

가스·폐기물·에너지 관련 중장기 목표 수립 등 실질적인 환경 리스크 최소화 기반을 마련하는 등 전사적 환경경영 체계를 구축하며 환경 부문 리스크 최소화에도 집중하고 있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항공업계 권위 있는 학술단체인 한국항공경영학회로부터 큰 상을 받아 영광스럽다”며 “앞으로도 제주항공이 항공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허정윤 기자

LG전자, 이마트 매장에 전기차 충전소 구축

30개 점포에 급속·완속 충전기 설치 클라우드 기반 관제 솔루션 구축 예정

LG전자가 이마트에 전기차 충전소를 공급한다. LG전자와 이마트가 3일 트레이더스 홀세일 클럽 동탄점에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기차 충전소 개소식을 진행했다.

LG전자는 이마트 이용객의 체류시간 및 편의를 고려해 100kW 급속충전

기, 7kW 완속충전기를 전국 이마트 30여 개 점포에 설치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전기차 충전기와 연동하는 클라우드 기반 통합 관제 솔루션도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이마트는 전국 매장 내 충전기 현황을 한 눈에 보고 원격 관리할 수 있고 소비자는 관제 솔루션을 이마트 모바일앱과 연동해 다양한 편의기능을 제공받는다.

/김서현 기자 seoh@